

이기는 삶

# 포기라는 단어는 잊어라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좋은 일로만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날씨도 일년내내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땅은 사막화 되어버린다고 한다. 비가 와야 대지를 적셔서 만물이 생존하기 적합한 환경이 되는 법이다.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였다.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 희망은 언제나 고통의 언덕 너머에서 기다린다. 우리 삶에 만일 거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평화와 번영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에드거 앨버트 케이트는 포기하고 싶

은 자신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 "이따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험한 비탈을 힘겹게 올라갈 때, 주머니는 텅 비었는데 값은 많은 때, 웃고 싶지만 한숨지어야 할 때, 주변의 관심이 되레 부담스러울 때, 필요하다면 쉬어가야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지! 인생은 우여곡절 굴곡도 많은 법.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닫는 바이지만 수많은 실패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 계속 노력했다면 이루어졌을 일, 그러니 포기는 말아야지 비록 지금은 느리지만 한 번 더 노력하면 성공할지 누가 알까! 성공은 실패와 인내의 차이, 의심의 구름 가장자리에 빛나는 희망, 목표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아무도 모를 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울지도 모르지, 그러니 얻어맞더라도 싸움을 계속해라, 일이 안 풀리는 시기가랄로 포기하면 안 되는 때!"

포기를 모르는 일개미 한 마리가 보리알을 물고 담벼락을 오르는데 예순 아홉 번을 떨어지던 뒤 일흔 번째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이 있다. 성공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끈기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끈기가 없으면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포기할 줄 모르는 개미를 배워라. 성공의 비결은 오히려 간단하다.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된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베토벤도 한 곡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열두 번을 고쳐 썼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원고를 80번이나 고쳤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완성하는 데 8년이 걸렸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최후의 만찬'에 10년을 바쳤다. 조지 반크로프트는 미국의 역사를 쓰는 데 23년을 쏟아

부었다. 노아웹스터가 '웹스터 사전'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시간은 38년이었으며 아담 클라크가 성서 주해를 쓰기 위해 보낸 세월은 40년이였다.

야구 영화 '그들만의 리그'에서 톰 행크스가 연기한 지미 듀건은 이렇게 말했다. "힘들 것이다. 힘들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비로소 위대해진다." 위대한 승자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모두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다. 둘째, 그들은 모두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다. 그리고 셋째, 아무리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포기란 없었다. 모두가 포기할 때 한 발 더 내딛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이 길은 마음으로 이루어 지는 길’  
‘This road is made with the heart’

오늘날 하나님과 해와, 아담 세 분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 Today, because God, Eve, and Adam have gathered and become one,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established. Therefore, God's will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여벌로 하는 역사인 것이다.

▶ Now, the salvation of mankind is work as a extra.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신인고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심정으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려는 것이다.

▶ Because God is the god of love and mercy, he is trying to save even one more life with a heart that does not extinguish even a dimly lit lamp.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어머니인 것이다. 세상 어머니들은 죽어가는 자식들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마귀와 초초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This Man is your mother. Mothers of the world cannot save their dying children, but He is fighting a fierce battle with the devil to save you.

이 길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 This path is the path of the heart.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천국에 들어온 것이요, 생명을 먹은 것이요, 영생을 얻은 것이다.

▶ Therefore, if you have the heart of God, you have entered the kingdom of heaven, you have eaten the Fruit of Life, and you have obtained eternal life.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요, 장시간 땀을 흘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요.

▶ You don't have to have any qualifications, it doesn't take time, and you don't have to pray sweating for a long time.\*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 영적 상징과 꿈 <24>

부제: 네 생물과 천부경

이제까지 5회에 걸쳐 네 생물의 왕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지면관계상 누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 중 일부를 추려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 인간(人間), 그 속에 숨겨진 네 생물

인간(人間)이란 말 자체에 담긴 의미는 실로 무겁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통찰과 비전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人)자를 보겠습니다. 인(人)은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을 그대로 묘사(模寫)한 글자입니다. 왼쪽 획(亻)은 마귀신을 상징하며 오른쪽 획(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匕)이 마귀신(亻) 밑에 깔려있는 형국이니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전 글, 영적 상징과 꿈 <22> 참조)

인(人) 다음에 간(間)자가 이어집니다. 간(間)은 문(門) 틈으로 태양(日)이 보이는 모습의 글자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문에 이어진 울타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벽이 있으니 문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문(門)은 그 자체로 울타리, 담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상징이니 태양을 가두고 있는 이 문은 마귀 옥입니다. 이를 네 생물의 관점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의 왼쪽 얼굴은 독수리, 오른쪽 얼굴은 사자입니다. 독수리와 사자는 하늘과 땅의 왕권을 쥐고 있던 마귀 신의 상징입니다. (영적 상징과 꿈 <19> 참조)

그렇다면 간(間)에서 태양을 가두고 있는 문(門)의 좌우 문짝은 각기 네 생물의 왼쪽과 오른쪽의 두 생물, 두 마귀를 상징하게 됩니다. 또한 문(門) 뒤의 태양도 목시록의 네 생물로 환언하면 맨 뒤의 송아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인간(人間)이란 글자에는 사람(人) + 좌우 두 마귀(門) + 하나님(日), 이렇게 목시록의 네 생물이 모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간은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이 채로 그 운명을 다할 존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間)을 다시 보십시오. 문(門) 사이에 이미 태양(日)이 보입니다. 이는 문을 박차고 나오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애기 보(子)를 찢고 태어나려는 아기의 모습이며, 마귀 옥을 부수고 등장하는 이기신자의 모습입니다.

인(人)자가 마귀에게 짓눌린 기존의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간(間)은 이기신 하나님인 태양(日)이 마귀 문을 열어젖혔고 등장하는 장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박차고 나온 태양이 바로 네 생물의 왕, 이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人間)이란 말에는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人)의 비참한 사정과, 그 어둠의 문을 부수고 찬란한 태양처럼 등장할(間) 이기신 하나님의 지난한 영광의 서사(敘事)가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그것이 인간(人間)입니다.

### 천부경과 네 생물의 왕

고대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심오한 우주관을 담고 있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경전인 천부경. 아래 구절은 그 마지막 구절들로서, 천부경의 정수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위에서 설명한 인간(人間)이라는 글자, 그리고 네 생물의 왕과 연동시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本心本太陽 본심본태양

사람의 본마음은 본래 태양이니

#### 昴明 양명

그 태양이 솟구쳐 올라 밝아지면

#### 人中天地一 인중천지일

사람 안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

먼저 첫 구절입니다. '本心本太陽 (본심본태양), 사람의 본마음은 본래 태양이니.'

인간(人間) 글자 속의 태양(日)이 사람 속의 하나님임을 바로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천부경에도 그 태양이 등장합니다. 아예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본래 태양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그 깊은 영적 통찰에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



(人中天地一)

나 알고 악하며 쉽게 변하는지는 겪어온 세월이 긴 자일수록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부경은 사람의 본마음이 태양이라 단언합니다.

인간의 갈마음을 뚫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마음,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드러낸 하나님,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고래(古來)로 태양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민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태양, 하나님이라고 천명한 민족은 우리 민족, 단(檀) 지파뿐입니다.

이어서 '昴明 (양명), 그 태양이 밝게 떠오르면..'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마음, 나라는 의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명(昴明)은 마귀 문(門)을 열어젖히고 태양(日)이 등장하는 모습인 간(間)과 짝을 이룹니다. 간(間)과 양명(昴明)은 같은 뜻으로서 서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人中天地一 (인중천지일), 사람 안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하늘과 땅, 천지인(天地人)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人中天地一 (인중천지일)은 여러 개의 중층적인 관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네 생물의 왕'이란 창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뚜렷이 보입니다. (그림 참조)

人中天地一 (인중천지일)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

원(圓)은 하늘이고 사각은 땅입니다. 이 도형에서 바깥의 원(圓)인 하늘과 사각형의 땅이 하나로 포개져 사람을 이루고 있으니, 사람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도형 자체가 네 생물의 왕으로서의 사람이며, 말 그대로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 사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이루어 있는 형상입니다.

둘째로 人中天地一 (인중천지일)은 아담과 해와를 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三位一體)로서의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즉 천지인(天地人)을 각기 세 씨의 하나님, 즉 삼위(三位)로 볼 때 뜻은 하나님, 地는 해와, 人은 아담입니다.

이제 人中天地一 (인중천지일)은 영적 아담(人) 즉, 주님 안에서 영모님(天)과 해와 이기신(地)가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는 장면이 됩니다.

이는 6000년 만에 하나님이 이기신 안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는 순간을 묘사한 것이며 동양의 체계로는 삼태극(三太極)이 완성되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人中天地一 (인중천지일)의 세 번째 버전입니다.

격암유록 등 동양의 체계에서는 '천신지귀(天神地鬼)라 하여 천(天)은 하나님, 지(地)는 마귀 신의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가 된다.'가 됩니다.

네 생물의 왕의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림 참조)

말씀드렸듯 원 안의 사각형은 네 생물로서 그 안에 마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각형을 품은 외접원은 마귀 옥을 뚫고 나온 이기신 하나님이며, 인간(人間)의 문(門)을 열고 등장한 해(日)이자, 천부경의 양명(昴明)한 바로 그 태양(太陽)입니다.

따라서 '네 생물의 왕', 이 그림은 이기신 하나님이 네 생물을 통째로 품고 있는 형상이며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가 된'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의 온전한 구현입니다.

이는 마귀 속에 갇힌 채, 한 생물로 전락한 인간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통째로 점

령하여 네 생물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모습입니다.

이기신 하나님의 주장 하에 네 생물의 왕으로 거듭난 그는 더 이상 마귀 종 인간, 한 생물이 아니라 인간이자 마귀 신을 포함한 네 생물이며, 무엇보다 이기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네 생물의 왕은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의 온전한 구현체입니다.

### 《부록》 죄(罪)와 네 생물

이기신의 말씀대로 의(義)는 하나님의 신이요, 죄(罪)는 마귀 신입니다. 의(義)도 죄(罪)도 행위가 아니라 존재요, 영(靈) 자체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의(義)는 양(羊)+나(我)입니다. 양은 성경상의 어린 양, 구세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양(羊)+나(我), 의(義)는 '하나님'이 '내가 된 존재'를 뜻합니다. 모세 앞의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곧 나"이다."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된 자, 하나님이 주체영이 된 자가 바로 의(義)입니다.

네(四) 생물이 아닌 것이 죄(罪)이며, 하나님(羊)이 내(我)가 되어 네 생물의 왕이 된 자가 의(義)입니다.\*

그렇다면 죄(罪)는 무엇일까요. 파자(破字)로는 사(四) + 비(非)이니 사(四)가